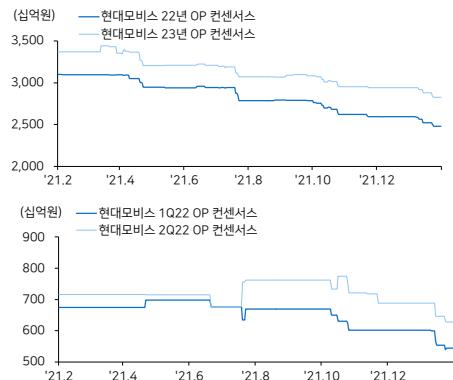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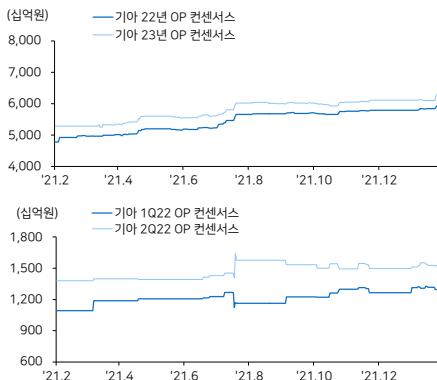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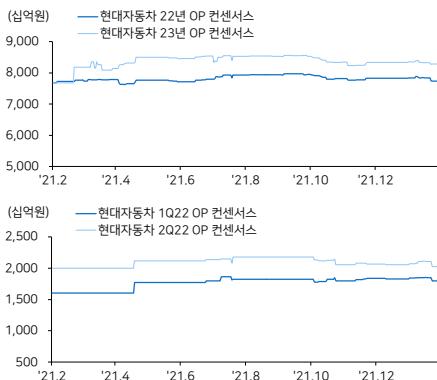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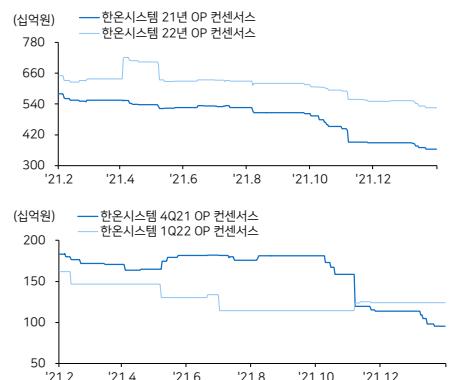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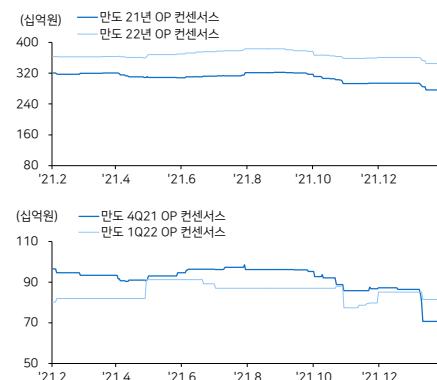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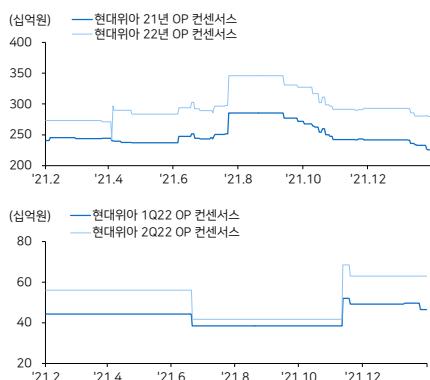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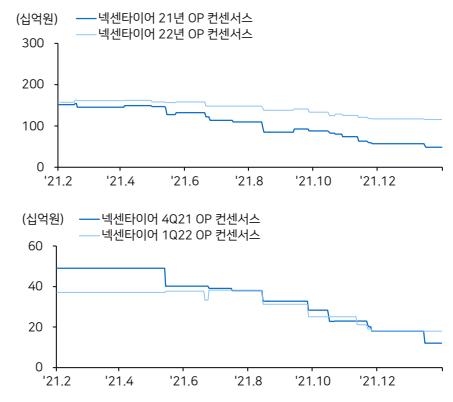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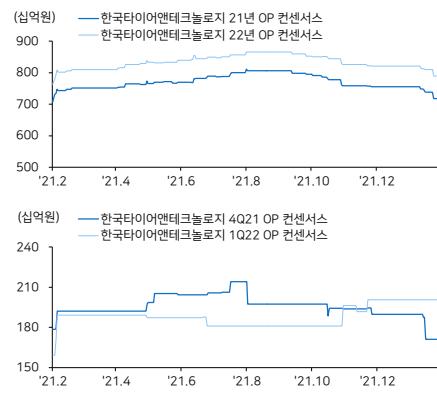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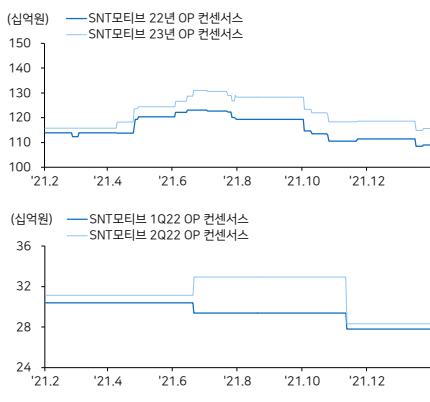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美시장 1월 판매 역대 최다…친환경차 판매 3배로 (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9만 3,998대를 판매해 작년 동기보다 3.1% 증가함.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미국 주요 5개 자동차 업체의 지난달 평균 판매량이 작년 1월 대비 7.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SUV 선전으로 판매량 증가.

<https://bit.ly/3ARRlqz>

中 3대 전기차 기업, 보조금 삭감에도 호실적 행진 (조선비즈)

중국 3대 전기차 기업(长城EV, 리오토, 난징EV)의 1월 판매량이YoY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당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 가운데서도 호실적을 거둔 셈. 이들은 테슬라와의 격차 해소와 점유율 상승을 위해 노력 중.

<https://bit.ly/3omGrHz>

Ford to make new investment of up to \$20 billion in EV push (Reuters)

포드가 전기차 생산에 최대 2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향후 5~10년간 100~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글로벌 공장은 선기자리 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할 것. 이러한 변화는 Doug Field가 주신 송.

<https://reut.rs/3B1vZHm>

U.S. sales slide 9% in Jan.; SAAR talles 15.2 million (Auto News)

반도체 부족과 공급망 이슈가 지속되어 미국 신차 판매는 지난달 9% 감소한 100만대를 약간 넘어섰. LMC는 '21년 여름 산업수요의 하락세 전환 이후 가장 적은 비율의 하락을 보였다고 밝힘. 여전히 신차 공급이 의미있게 개선되지는 않은 상황.

<https://bit.ly/3GulRYQ>

"GV60 주문 취소할까 말까"…보조금 줄어들자 계약자들 고심 (매일경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 기준이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GV60의 예약 취소 움직임이 관찰됨.

<https://bit.ly/3IYnzMD>

현대차 '등남아 진격'…90% 점유한 일본車에 도전 (서울경제)

현대차는 오는 3월 인도네시아 공장 원공식을 열고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 양산에 돌입. 인도네시아 공장을 전략적 교류보로 활용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

<https://bit.ly/3HOpNH>

GM prioritizes faster EV launches ahead of fatter profits (Reuters)

GM은 새로운 전기 자동차의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이전에 계획했던 3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힘. 21년 영업이익 143억 달러, '22년 영업이익 130~150억 달러 가이던스를 제시함.

<https://reut.rs/3HrC7uE>

Tesla sells nearly 54,000 vehicles that may disobey stop signs (Reuters)

Tesla는 FSD Beta가 설치된 53,822대의 미국 차량을 리콜할 예정. NHTSA는 Tesla가 "풀링 스톤"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일론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언급함.

<https://reut.rs/3sf6YU5>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